

이케다 모토스케는 오다 노부나가(1534~1582)가 어렸을 때부터 가신으로 종사하다가 1583년부터 1584년 사이에 기후성의 성주가 된 인물이다. 그는 노부나가 가 이끄는 수많은 전투에 참전한 숙련된 무장이었다. 1582년 아와지 섬 침공 당시, 그가 도요토미 히데요시(1537~1598)와 함께 싸우고 있었을 때 오다 노부나가는 교토의 혼노지 절에서 사망했다. 그 소식을 들은 모토스케는 히데요시의 부대에 가담하여 교토 교외의 야마자키에서 노부나가를 죽인 아케치 미쓰히데와 전투를 벌였다. 오다 가문의 후계자를 둘러싼 다툼에서 이케다 가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차남인 노부카쓰(1558~1630)를 지지했다.

1583년 이케다 가문이 미노국(기후현 남부)의 대부분을 통치하게 되면서 모토스케에게는 기후성이 주어졌다. 1584년 고마키(아이치현) 전투 때, 도요토미군은 상대편 도쿠가와군의 대부분이 전장에 나간 틈에 도쿠가와군의 거점인 오카자키성을 지키는 인원이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알아챘다. 이케다 모토스케는 부대의 일원으로 파견되어 오카자키성을 침공했지만, 그 계획은 도쿠가와군에게 발각되었다. 도쿠가와군은 이어진 나가쿠테(나고야 교외) 전투에서 도요토미군에 반격을 가했다. 이 전투 중에 모토스케가 전사하자, 아우인 데루마사가 기후성을 물려받았다.